

원 작가, 맘껏 써요... 밥상은 내가 차릴테니



극단 '청춘'의 오설균(왼쪽) 대표는 원광연 작가의 희곡을 가장 많이 공연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 극단 청춘 오설균·원광연 대표

희곡작가이자 연출가로 극단 '원광연'을 이끌고 있는 원광연(46)씨는 전남 대극회 출신이다. 무려 9년간 학교를 다닌 원씨는 '남자군'으로 전국 대학연극제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고 항상 연극과 함께했다. 대학 졸업 후 서울로 근거지를 옮겼지만 대학로 생활은 녹록치 않았고, 결국 낙향했다.

광주에서 어린이 뮤지컬을 만들고, 비엔날레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극단 부대표를 지내는 등 활동을 재개했지만 본격적으로 연극판에서 뒹굴지는 못했다. 그때 만난 이가 극단 청춘의 오설균(47) 대표다. 오 대표는 "언더 그라운드에 있지 말고, 나와라. 동료 연극인들도 만나고 지역 예술인들과 관계도 갖는 게 필요하다"며 연극인들의 모임마다 그를 챙겼다.

사적인 만남은 자연스럽게 작품 제작으로 이어졌다. '청춘'은 원 대표의 희곡 작품을 가장 많이 무대에 올린 극단이다. 첫 작품 '그와 나'를 시작으로 '페르조나', '미로' 등 많은 작품들을 함께했다. '버스를 기다리며'는 서울 대학로 D 페스티벌을 비롯해 울산, 대구 등 타 지역에서도 공연됐다. 두 사람이 최고로

꼽은 작품은 잔잔한 가족 이야기를 담은 '제비집'이다.

'청춘'은 창작품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고 많은 작품이 원 작가의 희곡이었다. "이미 검증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건 편하다. 반면 초연 창작극은 부담으로 시작한다. 그만큼 마음에 맞는 작품을 만나기도 어렵다. 원 작가의 작품 역시 좋았던 것도, 만족하지 못한 것도 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너무 완고한 태도를 갖고 있으면 제작하는 입장에서 참 힘들다. 그런 점에서 원 작가는 함께 고민하며 작품을 풀어나가기 좋은 작가다."(오설균)

"난, '원작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스타일이다. 배우도 해봤고, 연출을 병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갖게 된 태도다. 희곡은 텍스트일 뿐이다. 연출자가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건 당연하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무대에서 구현될 때 고맙다는 생각을 한다."(원광연)

매년 여러 작품을 함께 무대에 올렸던 두 사람은 최근 원 작가가 원광연이 활동에 집중하면서 만나는 횟수가 줄었지만 1년에 한 작품씩은 꾸준히 공연하고

고군분투하던 원광연에 손 내민 오설균 원 대표 희곡 작품 무대에 가장 많이 올려 "새로운 도전의 파트너"..."헌정 작품 기대"

있다. 2013년에는 원 작가가 '하녀들'을 각색한 '고양이들'을 공연했고 지난해에는 평화연극제에서 '그와 나'를 무대에 올렸다.

"오 대표의 장점은 사고가 열려 있다는 점이다. 또 열려 있는 그 사고대로 실천하는 게 좋다. 청춘이라는 극단이 늘 새로운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다. 지난 번 평화연극제 참가작의 경우 청춘의 젊은 배우들이 참여했는데 오 대표에게서 비롯된 청춘의 열린 마인드가 배우들에게도 그대로 보이는 것 같더라."

원 대표는 "광주 연극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 때, 또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상의하는 게 오 대표"라고 말했다.

"원 대표 역시 항상 열려 있는 마인드가 장점이다. 연극이란 장르가 하면 할수록 매너리즘에 빠져 버리게 되는데 원 대표는 늘 새로운 걸 시도한다. 머리를 저렇게 노랗게 염색 하는 것 보라.(웃음)"(오설균)

두 사람은 기회가 닿으면 두 극단이 함께하는 공동 작업도 해보고 싶다고 했다. "늘 합동 공연 하나 해보자 말은 있었

는데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인터뷰가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웃음) 배우가 자신에게 딱 맞는 작품을 갖는 건 행운이다. 원 작가가 오래전부터 나에게 꼭 맞는 헌정 작품을 써 준다고 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연극배우 주호성 하면 떠오르는 '술'처럼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오설균)

"지역에서 뮤지컬을 제작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오히려 불모지이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다. 내가 시도하는 새로운 도전의 파트너는 항상 오 대표다. 광주의 대표작을 만들고, 또 에디터에게 진출하고 이런 모든 도전을 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사람이 바로 오 대표다."(원광연)

한편 두 사람은 각자의 극단 작업도 준비중이다. '원광연'은 지금까지 3가지 버전으로 만든 대표작 '장자의 꿈' 4탄으로 노처녀 버전을 만들 생각이며 '남자군'을 뮤지컬로 제작한다.

'청춘'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연출가를 초빙, 작품을 올릴 예정이며 정극과 함께 비연극극, 낭독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구례 출신 한정현 동아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아돌프와 알버트의 언어'

구례 출신 한정현(30) 씨가 2015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 소설 부문에 당선됐다. 당선작은 '아돌프와 알버트의 언어'. 중앙지 신춘문예에 소설로 데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그녀의 당선은 지역 문정들에게도 고무적인 일로 다가온다.

한 씨는 2009년 조선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국어국문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 3년여 만에 신춘문예의 문을 통과한 것이다.

"작년부터 계간지와 신춘문예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최종심에서 탈락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했더니 마침내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다."

제목 '아돌프와 알버트의 언어'는 아돌프 히틀러와 알버트 아인슈타인에서 따왔다. 한 씨는 소수언어에 관한 책을 읽다가



모티브를 얻었다. 언어가 사라지는 현상이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과 유사했다. 이 여정 가운데서 한 씨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구원과 사랑이다.

"언어나 인간이나 사라지는 건 동일하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야 한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타자를 구원할 수 있다."

한 씨는 당분간 학업과 창작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생은 알 수 없고 확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소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찾는 존재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도 역사적 사실이나 거대 담론보다 전반적인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쓸 계획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

아이의 눈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다

무등갤러리, 내일까지 이기원전

경고한 철조로 된 사각 프레임 위에 어린 아이가 서 있다. 차가운 느낌을 주는 사각 프레임과 달리 동그스름한 아이의 얼굴은 따뜻한 느낌을 준다. 작가는 온갖 부조리가 가득한 현재를 사각 프레임으로 표현했다. "작은 아이의 눈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조각가 이기원씨의 개인전이 20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다'를 주제로 열린다. 이씨는 조각 작품 10여점과 함께 평면회화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갑과 을, 모순 등 답답한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작은 소망들을 이야기한다.

그는 "사각 프레임은 네모난 창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이며 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전남대 예술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한국미협 이사, 광주미협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6-2520. /김경연기자 kki@kwangju.co.kr



'창 너머의 세상'

중고책 매입 '북버스' 운영

인터파크도서 내일부터

인터파크도서는 중고책을 매입하는 '북버스' 서비스를 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 판매를 원하는 이는 회원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통해 책을 판매할 수 있다. 인터파크 접속 등을 통해 판매 가능한 도

서인지 확인을 거친 뒤 차량 방문이나 직접 배송, 전담 택배, 편의점 택배 등 판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판매 가능하다. 수거 서비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인터파크도서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이후 책 유통 등과 관련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해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일단 중고도서 매입에서 시작해 추가적인 서비스 유형 확대 등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